

이낙연·정세균 ‘후보 단일화’ 무관심?

정세균 “이낙연과 단일화 없다” 완주의지 밝혀

이낙연 “현 상태론 정권 재창출 낙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의 첫 대선 경선 지역인 충청에서 호남 출신 2명의 후보가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호남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지역의 민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마이 웨이’를 지속하고 있다.

당초 호남 민심은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에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와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리자 호남 표의 분산을 우려하면서도 ‘先 공정경쟁 後 단일화’를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당장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7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

화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정세균TV’에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완주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지사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고 답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충청권 경선 결과에 대해선 “충남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망을 줬다”며 “1차 슈퍼워

의 표심은 어떻게 긴장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흥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그는 공약 발표에 앞서 발언을 자청, “정책적 고민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겠다. 경쟁 후보들 정책도 과감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 경선에서 내리 완패한 것을 두고 “충청권 투표결과는 제게 아픈 것이었다.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이 무엇이었는

지 깊게 고민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충청권 권리당원 절반 이상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마음에 걸린다”며 “그렇게 된 데는 제 책임이 크다. 당 지도부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을 낙관하기 어렵다. 후보들과 당 지도부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저부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투표율이 50%에 미달했다. 그것은 뼈아프다”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호남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자체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락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개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법 부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증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



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與,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파상공세

김용 통화 녹취록 공개에
“공범행동 증거”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선 전 여론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와 갈등하며 쌓은 인지도가 유일한 자산인 정치 검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윤석열 캠프는 여론 공작이라는 헛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배의 구멍을 막지 않고 옆 배에 돌맹이를 던지는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청이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급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오히려 증거를 대라는 것은 사기꾼이 서민들 돈 다 갈취해 놓고 서민이 ‘내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꼴이란 똑같지 않냐”며 “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SNS에 “윤석열의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윤석열의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텔레그램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날



무슨 얘기?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권주자 공약 발표회에서 홍준표 예비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완전 바보 같은 자백을 했다”며 “장 의원은 고발장을 김용 의원이 작성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김 의원이 작성해 손준성 검사에게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공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발인으로 보도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법을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

적으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그거 자체가 둘이 공범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라고 되물었다.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이미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 받았으면서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제가 당 대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다”며 “2개 중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었던 것 같다. 그때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혹은)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한 극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與, 64만명 선거인단 투표 돌입

‘1차 슈퍼워크’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의 주요 승부처인 ‘1차 선거인단’ 투표에 돌입한다. 총 64만표 규모로, 전체 200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8-12일 5일간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진다.

오는 12일 강원지역 경선과 함께 열리는 ‘1차 슈퍼워크’에서 개표된다. 이 때문에 그 결과가 민주당 경선헤이스의 초반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순회경선지 충청에서 압승하면서 긴

장감은 다소간 떨어진 분위기다. ‘어후멍’(어차피 후보는 이재명)라는 인식이나오면서 흥행 요소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1차 슈퍼워크와 추석 이후 호남(25·26일) 순회경선, 2차 슈퍼워크(10월3일)까지 승리를 이어가 본선행 직행을 위한 ‘매직넘버’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태세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충청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 지사에게 밀렸던 충격을 딛고 추격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간 캠프가 당원이나 조직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민 일반 여론을 더욱 챙기며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1기 목포 청년 정치아카데미’ 성료

목포지역 예비 청년정치인을 위한 ‘제1기 더민주 목포 청년 정치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지난 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더민주 목포청년정치아카데미(위원장 이완식)’가 주관한 이번 아카데미는 선발된 30명의 목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역 정

치인과 지자체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지난 7월24일 김원이 국회의원 강연을 시작으로 ▲고민정 국회의원(7.31) ▲김영록 전남도지사(8.7) ▲김종식 목포시장(8.14) ▲김승남 국회의원(8.28) ▲장경태 국회의원(8.28)의 강연과 수강생 조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9월4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아카데미가 마무리됐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